

“순례길 발걸음, 韓불교 활력 불어넣는 희망”

“순례길 조성 일조 포교 마케팅 기대”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불교중흥과 포교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천리순례에는 조계종 포교원이 함께하고 있다. 포교원은 10월 14일 삼보사찰 천리순례 중 부곡에서 포교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포교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삼보신앙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실행문화로 발전시키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해 스님은 지난 자비순례에 순례단원으로 동참했다. 포교원장으로서 전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순례에 대한 마음은 직접 참여한 이들에 못지 않다.

스님은 “걷는 것이 쉽지 않지만, 뒤돌아 보면 침묵 속에서 자기자신을 되돌아 보고 불교가 나를 이끌어 준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며 “동참하는 분들도 신심을 내겠지만 준비하는 이들과 지켜보는 이들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격려했다.

취임 이후 설문조사를 진행, 새해 포교정책을 준비 중인 스님은 순례문화 활성화와 또한 포교원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스님은 “시대변화 속 새 포교를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마케팅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끊임없이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그 중 하나로 이번 천리순례길뿐만 아니라 전국 분사가 많이 알려진 사찰을 잇는 순례길 형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범해 스님은 “천리순례 후 지장신앙, 미타신앙, 약사신앙, 관음신앙 등 특색있는 순례길이 곳곳에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상생의 마음으로 순례 공덕 회향”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천리순례의 회향지인 불보종찰 통도사는 순례 이후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곳이기도 하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순례 이후 새로운 수행 문화 형성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현문 스님은 “스님들은 안거가 끝나면 만행을 나신다. 이는 수행의 공덕을 대중에게 회향하는 의미”라며 “찾아가는 불교, 움직이는 불교를 외치는 천리순례가 불자들과 국민들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새로운 수행문화 형성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단순한 걷기가 아닌 삼보의 존귀함을 다시 일깨우고 그 가르침을 새기는 행선”이라며 “불교는 이제 조용히 머무르는 수행, 찾아와 아만 하는 사찰 등의 면면을 일신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통도사는 한국불자들의 귀의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례단이 통도사에서 회향하는 10월 18일 바로 전날인 10월 17일은 개산 1376주년 개산대제 회향일이기도 하다.

통도사는 ‘상생’을 주제로 개산대제를 열 만큼 통도사의 가치와 역사적 전통을 대중들과 함께 나누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현문 스님은 “2년 여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지쳐있는 지금 불교는 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고 전했다.

스님은 끝으로 “불교 중흥을 위한 순례단의 원력과 상생을 위한 통도사 대중들의 마음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국민 코로나 아픔 순례가 희망 치료제”

해인사 주지 현웅 스님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습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실행으로, 불자들에게는 삼보를 향한 신심과 귀의를 전하고 국민들에게는 국난극복의 의지를 모아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불보종찰 해인사 주지 현웅 스님이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향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불교계, 그리고 불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넘어, 국민들을 위로하고 고통받는 중생을 치유하는 법석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무엇보다 해인사는 부처님 가르침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불보종찰이다. 고암 스님과 성철 스님, 혜암 스님 등 시대의 선지식들을 비롯해 수많은 수행자들이 정진했던 대표적 수행도량이기도 하다.

현웅 스님은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내 안의 불·법·승 삼보를 찾아나서는 길”이라며 “어찌보면 한국불교는 그동안 불법승 삼보를 향한 예경이 너무 당연히 되레 소홀히 여겨왔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스님은 “무엇보다 삼보사찰은 한국불교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수행과 문화의 전통을 상징한다”며 “때문에 삼보사찰을 순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한국불교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10월 9일 해인사에 당도해 법보의 상징인 팔만대장경관이 봉안된 장경관전을 참배한다. 이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고 신앙심을 고취하는 여법한 순간이 될 전망이다.

송지희 기자

“괘불재도 함께 봉행 ‘천리순례’ 의미 배가”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불·법·승 삼보의 귀중함을 다시 인식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같은 의미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승보종찰 송광사는 60년만에 괘불재 봉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보종찰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은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의미와 취지를 되짚으며 벅찬 기대감을 전했다. 승보종찰 송광사는 삼보사찰의 하나이자,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천리순례의 시작점이다. 때문에 천리순례를 계기로 송광사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나가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 깊다.

자공 스님은 “순례대중들이 불편함 없이 순례의 참 의미를 고스란히 느끼고 순례의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발원하는 마음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괘불재 역시 사부대중의 염원을 모아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송광사 괘불재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거행된다. 이날 공개되는 송광사 괘불은 1961년 화승 일섭 스님과 13명의 회원들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이번 괘불재를 통해 60년만에 처음으로 대중과 만난다. 60년간 잠자고 있던 괘불이 다시금 신앙과 예경의 대상으로서, 사부대중의 염원을 모으는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자공 스님은 “올해를 시작으로 송광사 괘불재를 정례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며 “천리순례 입재와 함께 하는 괘불제인만큼,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사부대중의 염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상징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불자 자긍심 고취의 장 확신”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자비순례에 이어 이번 천리순례 일정을 함께한다. 주 신도회장은 재가불자들을 대표해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불자’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주 신도회장은 “지난 해 자비순례에 이어 금번 결사는 포교와 전법을 주제로 진행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인 만큼 저 또한 전국 재가 불자들을 대표하여 막중한 책임감으로 동참하게 됐다”며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이 여정을 함께하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포교시대와 중흥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주 신도회장은 불자들에게 “신도의 가장 큰 역할은 삼보를 호지하며 조계종 종지를 신수 봉행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의미에서 승보종찰 송광사를 시작으로 법보사찰 해인사를 지나 불보사찰 통도사로 회향

하는 금번 결사는 불·법·승 삼보의 존귀함을 새롭게 되새기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자비순례 당시 500km의 순례길을 걷는 동안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중들의 간절함을 느꼈다는 주 신도회장. 그는 “상월선원 회주이신 자승 스님으로부터 ‘사부대중이 함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불교중흥의 길’이라는 명료한 가르침을 받아, 신도들의 역할과 신도회의 활동 방향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전했다.

주 신도회장은 순례 이후에도 상월결사에 대한 끊임

없는 불자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주 신도회장은 “순례는 결국 포교와 전법의 힘찬 발걸음으로 지속적인 응원이 필요하다”며 “재가불자들이 역량을 모아 불교 중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동참하시는 정진 대중 스님과 불자 여러분들이 정진수행으로 무사히 회향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움직이는 불교, 찾아가는 불교, 적극적인 불교를 기치로 한국불교 중흥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가는 순례사찰

修道聖地 사성암

섬진강을 굽어보는 해발 500m 바위산 오산(鰲山). 이 산의 가파른 절벽에는 한국불교사의 고승으로 손꼽히는 4명의 스님이 수도한 ‘사성암’ (四聖庵)이 있다. 원효대사, 의상대사, 도선국사, 진각국사 등 고승들이 거쳐간 사성암은 수도정진하는 이들에겐 성지 와도 다름없다.

사성암은 역사가 매우 오래된 암자로 그 연원은 백제 성왕 22년(544)에 인도에서 온 고승 연기조사가 처음 개창하였다고 한다. 연기조사는 지리산 근처에 많은 절들을 개창하였는데, 원래 이름은 오산암이었다.

명승 제111호로 지정된 사성암은 경관이 매우 뛰어나다. 구례 오산은 <불성지>에 ‘그 바위의 형상이 빼어나 금강산과 같으며, 예부터 부르기를 소금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오산 사성암 일원은 굽이지며 흐르는 섬진강과 구례읍 등 7개면과 지리산 연봉들을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다. 때문에 사성암에서 좌선을 하면 지리산의 정기를 한 곳에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절벽가에 위치한 사성암에는 바위틈이 군데 군데 있는데, 실제

로 도선국사가 참선을 했다는 도선굴도 있다.

본사인 화엄사와 마찬가지로 사성암도 화엄사상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 화엄세계의 53불과 500나한이 함께 모셔진 나한전이 그것을 입증한다. 53불은 조선 후기 조성됐는데, 33불만 남아 있고, 20불은 현대에 재조성한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순례를 행하는 순례자들에게 깨달음을 증득한 나한들의 모습은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온다.

이와 함께 사성암 유리광전에 모셔진 마애약사여래불은 높이 3.9m 크기에, 음각으로 새겨진 마애불로 원효대사가 손톱으로 바위에 새겼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못 중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약사여래기도로 기도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성암 주변에는 12비경이라는 명소가 전하는데 진각국사가 참선했다는 좌선대, 우선대를 비롯하여 섬진강과 지리산을 살필 수 있는 절경과 해질녘에 노을이 아름다운 낙조대 등도 정취를 더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성암 유리광전